

TRADE BRIEF

2022.02.18 No.2

ISSN 2093-3118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현황 및 우리기업 영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10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며 군사적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다. 사태가 악화되면 에너지 원자재, 반도체용 희귀광물 등을 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우리기업이 제조 원가 상승, 수급 차질 등에 직면할 수 있다. 다만 러시아 의존도가 70%인 품목은 47개 정도로 심각한 영향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가 실시한 업계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현 사태로 거래 위축, 루블화 환리스크, 물류난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절반 정도의 기업만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었다. 기업들은 무역보험 지원, 신속한 정보제공, 거래선 다변화 지원 등을 정책 우선순위로 뽑아, 정부의 현지 상황 및 서방 경제제재 내용 파악, 지원책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향분석실

김꽃별 수석연구원, 조의윤 수석연구원
kb.kim@kita.or.kr, uy.jo@kita.or.kr

I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개요

● 최근 러시아는 국경 지대에 군사력을 배치하며 안보 및 경제 분야 요구사항 제시

- 러시아는 2021년 11월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에 10만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우크라이나 등 구 소련 국가의 나토 가입 영구 배제 및 러시아 주변에 대한 나토 군사력 미배치를 요구
 - 향후 ①러시아 직접 침공, ②돈바스 반군을 통한 간접전, ③외교적 타협 (돈바스 독립, 우크라이나 나토 미가입 등 조건) 시나리오 전개 예상

[참고] 러시아의 안보 관련 요구사항

- 우크라이나 및 다른 국가의 신규 나토 가입 금지 및 코카서스·중앙아시아 내 군사행위 중단
- 구소련 국가, 나토 비회원국 영토 내 군사기지 설치 및 군사협력 강화 금지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위협 및 안보 보장 요구에는 정치·경제적 필요가 복합적으로 작용

- (정치) 우크라이나를 지리적·외교적 완충지대로 활용하고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하여 러시아 위상 과시 및 내부 지지율 제고
- (경제) 우크라이나 지역은 세계 3대 곡창 지대 중 하나로 '유럽의 빵 바구니'로 불릴만큼 비옥하며 철광석·석탄·망간 등 자원도 풍부

● 미국 및 EU는 외교적 협상을 시도하는 한편 강력한 경제 제재를 예고

- 1월부터 미국, EU가 러시아와 본격 협상에 돌입, 합의 도출에 실패

〈러시아·미국·EU 회담 일지〉

일자	회담 내용
1.10	미국-러시아 간 고위급 안보보장회의 개최되었으나 8시간 회담 후 결렬(제네바)
1.12	나토-러시아 간 4시간 협상이 소득없이 종결(브뤼셀)
1.13	OSCE(유럽안보협력기구)-러시아 회담, 합의 불발(빈)
2.12	바이든-푸틴 전화 담판, 긴장상태에 대한 돌파구 마련은 불발

- 미국과 EU는 우크라이나 침공시 고강도 제재를 예고했으나 EU 내에서는 제재 수준에 이견이 노출
 - 특히 독일은 탈원전 정책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많은데, 수입의 5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제재에 소극적

* 독일은 미·독 정상회담(2.7) 후 적극적인 대러시아 제재에 합의했으나 노드스트림2 승인에는 소극적

II • 한-러시아, 한-우크라이나 교역 동향

① 對러시아 교역 동향

● (비중) 러시아는 우리 수출의 약 1.6%, 수입의 2.8% 비중을 차지하는 10위 교역대상국(21년 기준)

● 최근 20년 동안 전체 교역 중 對러시아 교역비중 순위는 21위(00년)에서 10위(21년)로 크게 상승

〈한-러시아 교역 순위 비교〉

수입액	2000년	2010년	2021년
교역	21위	12위	10위
수출	31위	12위	12위
수입	18위	12위	9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 (수출 품목) 자동차·부품(40.6%), 철구조물(4.9%), 합성수지(4.8%) 등이 전체 러시아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

● (수입 품목) 나프타(25.3%), 원유(24.6%), 유연탄(12.7%), 천연가스(9.9%) 등 에너지 수입이 전체 러시아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

*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對세계) 중 러시아 비중(2021년): 나프타(23.4%, 1위), 원유(6.4%, 4위), 유연탄(16.3%, 2위), 천연가스(6.7%, 6위), 무연탄(40.8%, 2위), 우라늄(33.9%, 2위)

〈2021년 우리나라 對러시아 주요 수출입 품목〉

(백만 달러, %)

품목	수출			품목	수입		
	금액	비중	증가율		금액	비중	증가율
승용차	2,549	25.5	71.7	나프타	4,383	25.3	72.8
자동차부품	1,509	15.1	37.5	원유	4,269	24.6	79.0
철구조물	487	4.9	2,188.4	유연탄	2,203	12.7	31.0
합성수지	476	4.8	88.6	천연가스	1,715	9.9	120.8
건설중장비	425	4.3	99.9	백금	593	3.4	80.7
화장품	290	2.9	19.2	계	453	2.6	14.2
아연도강판	211	2.1	40.2	무연탄	363	2.1	27.0
기타플라스틱	174	1.7	20.7	알루미늄과·스크랩	302	1.7	55.6
선박	139	1.4	18.7	고철	267	1.5	57.1
의자	119	1.2	25.1	우라늄	252	1.5	12.2

주1: MTI 4단위 기준/ 주2: 증가율은 전년 대비

출처: 한국무역협회

② 對우크라이나 교역 동향

● (비중) 한-우크라이나 교역 규모는 연간 약 9억 달러 수준에 불과(교역대상국 68위)

- 최근 20년 동안 한-우크라이나 교역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한-우크라이나 교역 순위 비교〉

수입액	2000년	2010년	2021년
교역	57위	55위	68위
수출	86위	65위	64위
수입	44위	46위	75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 (수출 품목) 승용차(21.7%), 아연도강판(11.0%), 화장품(8.3%), 합성수지(7.7%) 등이 對우크라이나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

● (수입 품목) 사료(39.8%), 식물성유지(11.3%), 기타정밀화학원료(9.7%), 곡류(7.8%) 등 1차산품 및 원료 관련 품목을 주로 수입

* 우리나라 품목별 수입(對세계) 중 우크라이나 비중(2021년): 사료(2.9%), 식물성유지(1.7%)

〈2021년 우리나라 對우크라이나 주요 수출입 품목〉

(백만 달러, %)

품목	수 출			품목	수 입		
	금액	비중	증가율		금액	비중	증가율
승용차	126	21.7	63.2	사료	123	39.8	-71.9
아연도강판	64	11.0	138.7	식물성유지	35	11.3	88.5
화장품	48	8.3	52.7	기타정밀화학원료	30	9.7	77.2
합성수지	45	7.7	128.7	곡류	24	7.8	-62.4
자동차부품	34	5.9	23.9	기타난방 및 전열기기	18	5.8	10.4

주1: MTI 4단위 기준/ 주2: 증가율은 전년 대비

출처: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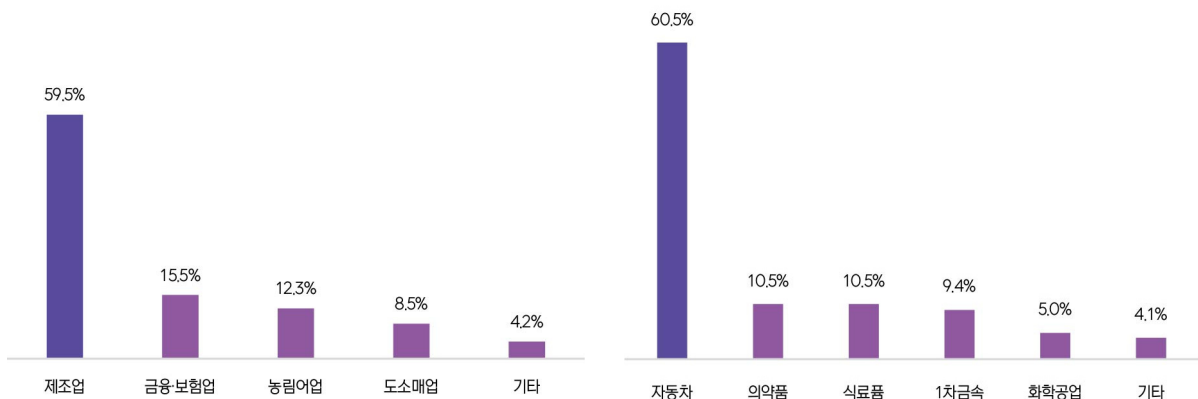
\ 참고 \ 對러시아 해외직접투자 현황

◎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해외직접투자(FDI)의 절반 이상이 제조업에 집중

- 2019년부터 2021년 3분기 중 한국의 對러시아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3.2억 달러이며, 이 중 제조업이 1.9억 달러로 59.5% 차지
 - 제조업 중에서는 자동차(60.5%), 의약품(10.5%), 식료품(10.5%) 순으로 높음
 - 반면 한국의 對우크라이나 해외직접투자(2019년~2021년 3분기 누계)는 9백만 달러에 불과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아모레퍼시픽, 오리온 등 한국기업 40여개사가 러시아에 진출
 - 현대·기아차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연 23만대 규모의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삼성전자는 깔루가 생산 법인을 통해 TV·세탁기를 생산 중이며 오리온은 트베리주크립쑈바에 세 번째 신공장을 건설 중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FDI 비중(산업별)〉

〈우리나라의 對러시아 제조업 FDI 중 세부산업 비중〉



주: 2020년~2022년 3분기 누계 각 산업별 비중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Ⅲ •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① 업종별 영향(기업수 기준)

- 국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다수 포진해있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화장품, 합성수지 등을 중심으로 교역 차질 예상
- (기업분포) 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 중 수출 기업수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클 전망
 - 화장품(444개사), 기타플라스틱(239개사), 자동차부품(201개사), 합성수지(137개사) 등은 러시아 수출 기업이 100개사를 상회하는 품목

〈2021년 품목별 對러시아 수출 기업수〉

품목	화장품	기타플라스틱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아연도강판
기업수(개)	444	239	201	137	30
수출액(백만 달러)	290	175	1,509	476	211
품목 수출액 순위	6위	8위	2위	4위	7위

주: MTI 4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 (유사사례) 2014년 서방의 대러제재 당시 2015년 對러시아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

- 품목별로는 승용차(-62.1%), 칼라TV(-55.0%), 타이어(-55.7%) 등 당시 주력 품목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바 있음

〈2015년 우리나라의 러시아 주요 수출품〉

(백만 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증감률
승용차	2,405	911	-62.1
자동차부품	1,388	838	-39.6
합성수지	417	242	-42.0
칼라TV	353	159	-55.0
기타플라스틱제품	158	107	-32.3
아연도강판	194	101	-47.9
윤활유	109	88	-19.3
기타기계류	65	79	21.5
타이어	174	77	-55.7
화장품	38	36	-5.3
전체	10,129	4,685	-53.7

주: MTI 4단위 분류/ 자료: 한국무역협회

②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내 제조기업 수입 부담 가중

● (단가)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내 제조기업의 수입부담 확대

- 러·우 갈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천연가스, 원유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가 가속화
 - 러시아가 2021년 12월 야말-유럽 가스관 공급을 중단하자 천연가스 선물가격이 폭등
 - * 미국 천연가스 선물가격(\$/MMbtu, 전년비 %): 2.58(13.1, '20.12월) → 3.86(49.6, '21.12월) → 4.26(60.7, '22.1월)
 - 브렌트유(Brent)는 '21.12월 초 68.9\$/b였으나 올해 2월 15일 93.3\$/b를 기록하며 35.4% 상승

〈'21.12월 4대 에너지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품목명	수입액	비중	기여율(%)
원유	7,089	11.6	19.8
천연가스	3,441	5.6	11.6
나프타	2,143	3.5	8.5
유연탄	1,833	3.0	6.7

주: 기여율=전년동기대비 품목별 수입액 증감/총 수입액 증감*100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요 에너지 원자재 수입단가 추이〉

(단위: 천 달러/톤)

품목명	20.12월	21.12월	증가율(%)
원유	0.336	0.611	81.8
천연가스	0.358	0.892	149.2
나프타	0.393	0.775	97.2
유연탄	0.071	0.186	162.0

주: 증가율은 21.12월 수입단가(수입금액/수입물량)의 전년동월 대비
자료: 한국무역협회

※ 〈참고〉 석유화학 원자재 수입가격이 10% 상승시 국산품 가격은 0.25%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됨

〈국제원자재(석유화학) 가격상승(10%)의 업종별 물가파급효과〉

구분	비철금속	철강제품	석유화학	금속제품	전기전자	선박	자동차	전산업평균
물가상승	0.10%	0.06%	1.42%	0.12%	0.43%	0.13%	0.30%	0.25%

주1: 2018년 기준/ 주2: 전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포함
자료: 국제원자재 가격의 변동요인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분석(무역협회, '21.5월)

③ 상대적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부 희귀품목의 수급차질 발생 가능

●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일부 희귀가스(네온, 크립톤, 크세논 등)에 대해 對우크라이나 수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수입의존도('21년, %): 네온(우크라 23.0), 크립톤(우크라 30.7), 크세논(러시아 31.3, 우크라 17.8)

-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70% 이상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품목수(HS 10단위)는 약 50개 내외로 양국 전체 수입 품목수(2,418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수준('21년 기준)

* 수입의존도 70% 이상 품목 개수(국가별): 러시아 43개, 우크라이나 4개

④ 현지진출 기업 부품조달·무역 대금 결제·환변동성 불확실성 확대

- (부품조달) 반도체 등 첨단제품의 對러시아 수출 차단 시 현지 부품 조달 난항 예상
- (대금결제) SWIFT 결제망에서 러시아가 배제될 경우, 한국기업은 대금결제 지연·중단에 따른 손해와 우회 결제로 마련을 위한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
- (현지환율) 과거 경제제재에도 루블화 가치가 하락한 바 있어 사태 악화시 달러-루블 환율의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음

* 2014년 크림반도 경제제재 및 저유가로 2015년 1월 평균 환율이 전년동월대비 97.6% 상승

〈러·우 사태 관련 수출기업 현장 인터뷰 내용〉

구 분	수출기업 인터뷰 내용
부품·원부자재 조달 애로	(현지진출기업 A사) 전쟁 발발 시 물류난 발생 가능성이 높고, 수출통제까지 현실화되면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공장 운영에도 지장이 있을 것임
對러시아금융 제재시행 여파	(수출기업 B사) 제재가 지속될 경우, 국내금융기관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여타 무역 보증도 제한될 수 있음 (현지진출기업 C사) 무역대금 회수 지연 및 현지 생산·판매 법인의 본사 송금 제한 우려
루블화 평가절하 영향	(현지진출기업 D사) 달러 결제 제한으로 러시아측이 루블화 결제나 가격인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루블화 평가절하에 따른 환차손도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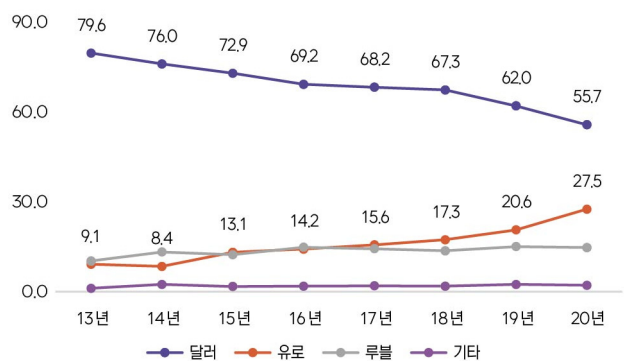
- 2014년 제재 이후 러시아측은 자체 국제결제시스템(SPFS)을 구축하는 등 탈 달러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이 달러화로 결제

〈경제제재 시기와 달러화 결제 비중〉

	통화	2014	2018	2020
총괄	달러	76.0	67.3	55.7
	유로	8.4	17.3	27.5
	루블	13.2	13.6	14.7
	기타	2.4	1.8	2.1
對중국	달러	97.1	75.1	22.7
	유로	0.8	12.0	65.3
	루블	1.4	7.5	5.7
	기타	0.7	5.4	6.3

출처: 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통화별 결제 비중 추이〉



IV • 결론 및 시사점

●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이 심화되어 대러시아 제재와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 기업 영향이 불가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주요 영향〉

구분	내용	국내외 영향
공급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러시아의 유럽 천연가스 공급 중단 국제유가,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추가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제조원가 상승 사태 장기화시 에너지 수급난
경제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기술이 포함된 첨단제품 수출 제한 - 반도체, AI 등 다양한 품목에 적용 가능 SWIFT에서 러시아 금융기관 배제(달러 결제 제한) 러시아 주요 인사/법인의 자산 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기업의 현지공장 부품조달 애로 - 자동차, 가전 등 현지 공장 운영 제한 대금 결제회수 지연, 무역 보증 제한, 우회 결제에 따른 비용 증가
환율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루블화 평가 절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법인 매출 감소, 환차손 - 러시아 수입 물가 상승, 구매력 감소

- 서방과 러시아의 입장이 팽팽하여 단기간 내 리스크 해소가 어려운데다 전쟁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어 우리기업의 피해 우려가 적지 않음
 - **(진출기업)** 현지 생산법인의 부품 조달 어려움, 루블화 약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 내수시장 침체로 인한 매출액 감소, 물류난 등의 피해가 예상되며 전반적인 투자심리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수출기업)** 금융 제재로 SWIFT에서 러시아가 제외된다면 자동차, 자동차부품, 화장품,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의 수출 감소 우려
 - **(국내기업)**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무역수지 악화 및 제조원가 상승 불가피

● 우리 기업 다각적 대응방안 모색 필요

- 국내기업의 경우 달러화 결제 중단에 대비한 대응책(유로, 엔화 등 여타 통화 결제, 물물교환 방식의 현물거래)을 마련하고 향후 수출통제에 대비하여 주요 부품의 재고 확충, 부품 공급처 다양화 등을 모색
 - 또한 수출기업은 현지 바이어 신용조사를 강화하고 외상추심거래를 축소해야 하며, 진출기업의 경우 루블화 표시 자산을 축소하고 자금경색에도 대비할 필요

● 對러시아 경제제재 실시간 모니터링 및 현지 상황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정책대응 절실

● 정부는 전쟁발발, 제재 강화에 맞춘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마련과 함께 피해업체 지원방안을 수립할 필요

- SWIFT 결제망 배제에 따른 대체 대금정산 시스템 구축 필요
- 사태 장기화에 대비 수출기업을 위한 무역보증 확대, 현물결제 지원 등이 필요
- 러시아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프타와 석탄(유연탄, 무연탄)은 단기간 수입 대체가 쉽지 않은 만큼 제3국 물량 확보나 수입선 대체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

* 나프타: 러시아(1위 수입국) 수입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UAE(2위 수입국) 등 여타국 수입대체시 추가 비용이 수반

* 무연탄: 호주(52.8%), 러시아(40.8%) 의존이 높아 수입대체시 호주 의존도 상승이 불가피

〈우리나라의 에너지 주요 수입국〉

(단위: 백만 달러, 천 달러/톤)

일자	러시아			주요 수입국		
	순위	수입액	수입단가	국가명(순위)	수입액	수입단가
나프타	1위	4,383	0.630	UAE(2위)	2,606	0.652
유연탄	2위	2,203	0.114	호주(1위)	7,290	0.126
무연탄	2위	363	0.139	호주(1위)	468	0.134

\ 참고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수출기업 설문조사

〈조사개요〉

1. 조사기간: 2022년 2. 9(수) ~ 11(금)
2. 조사대상: 수출입 기업 CEO 1,000개사
3. 응답기업: 러시아·우크라이나와 교역 중인 수출입 기업 86개사 (응답률 8.6%)
 - 기업분류: 대기업 (2개사), 중견기업(1개사), 중소기업(83개사)
 - 거래지역별: 러시아·우크라이나 거래 45개사, 여타 동유럽 거래 41개사
4. 조사방법: e-mail (온라인 설문)

◎ (애로) 전쟁발발시 수출입 거래 위축, 환율변동, 물류난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거래 위축'을 꼽은 기업은 22.7%, '환율 변동성 리스크 발생'은 21.0%, '봉쇄에 따른 물류난'은 20.2%, '금융 제재에 따른 결제 리스크'는 16.8%, '원자재/수입품 수급난'은 9.2%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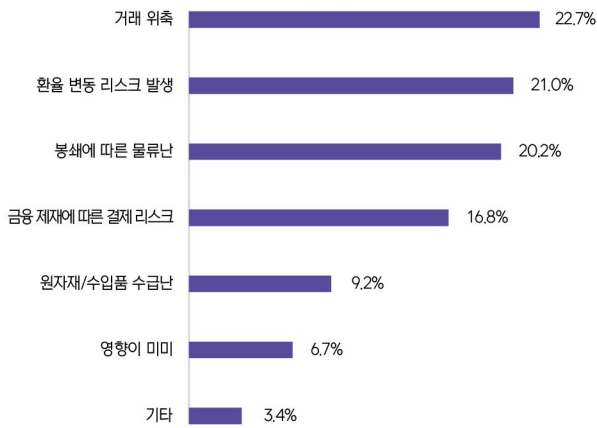
◎ (대응 현황) 현재 회사의 대응을 '바이어/공급선 다변화'로 응답한 비율은 30.5%로 가장 높았으며 '수출입 보험강화'와 '결제대금 선물환 체결'은 각각 17.1%, 6.1%로 53.7%의 기업만 적극 대응

- 한편, 러시아 금융제재시 대응으로 '상황 안정시까지 거래 중단/보류'(49.3%)를 답한 기업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우며 '제3국 통화 결제'는 28.4%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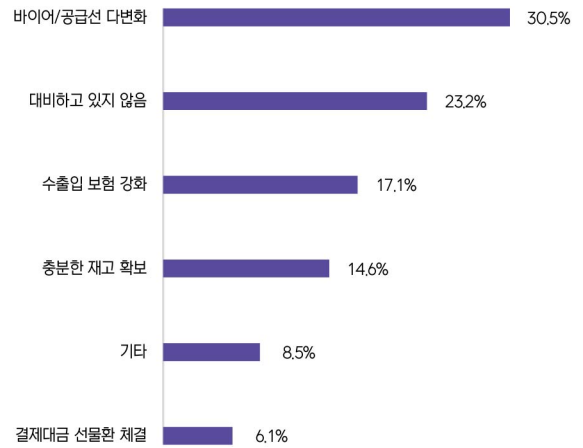
◎ (정책 대응) 수출업체는 정부차원의 무역보험 지원, 현지정보 제공을 가장 희망

- 정부 등 지원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수출입 보험계약 지원'(25.4%)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신속한 현지 정보 제공'(21.3%), '거래선 다변화(전시/상담회) 지원'(17.2%) 등이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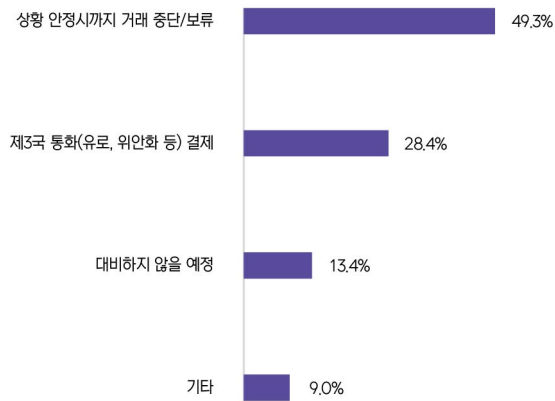
〈전쟁 발발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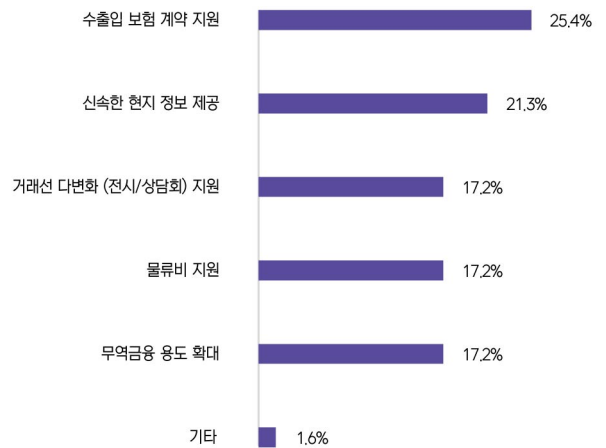
〈현재 회사의 대응〉



〈향후 러시아 금융제재시 대응〉



〈정부 등 지원요청 사항〉



〈2022년도 국제무역통상연구원 Trade Brief 발간 현황〉

발간 호수	보고서 제목	작성자
2022.01.05 No.1	CES 2022를 통해 본 코로나 공존시대 혁신 트렌드	박가현
2022.02.18 No.2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현황 및 우리기업 영향	김꽃별, 조의운